

Briefing

발행일 2025. 9. 15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발행인 김영진

주소 대전 유성구 전민로 37 tel. 042-530-3500 fax. 042-530-3528

대전 수출기업의 미 관세 정책에 따른 대응 전략¹⁾

경제사회연구실 연구위원 김은영

서론: 새로운 통상환경

- 글로벌 4대 메가트렌드(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2기 정부의 공격적 관세정책이 한국의 수출 중소기업에게 직접적인 생존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음
 - 특히 2025년 7월 30일 한미 무역협정으로 15% 관세율이 확정된 상황이지만, 8월 7일 트럼프가 발표한 반도체 100% 관세는 대전 수출기업들에게 완전히 다른 차원의 도전을 제기하고 있음
- 트럼프는 2025년 4월 1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발동해 모든 국가에 10% 기본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무역적자 상위국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적 관세'라는 명목으로 단계별 인상을 단행함
- 한국은 7월 30일 체결된 무역협정으로 15% 관세선에서 안착했지만, 이는 여전히 기존 무관세 상태에서 급격한 상승으로 더욱 심각한 것은 8월 7일 트럼프가 발표한 반도체 100% 관세로, "미국 내 생산 시설을 건설하거나 건설 중인 기업은 면제"라는 조건부 예외만을 두고 있는 상황임
- 미국의 2024년 무역적자는 1.2조 달러로 역대 최대이며, 중국(2,954억 달러), 멕시코(1,718억 달러), 베트남(1,235억 달러) 순의 적자국에 대한 강력한 관세정책이 지속될 전망이다

대전 수출기업의 구조적 취약성 점검

■ 2024년 대전 수출 현황의 심각성

- 대전의 수출규모는 46억 달러로 전국 17개 광역자치체 중 14위에 그치고 있으며, 미국(23.4%)과 중국(22.1%)에 대한 의존도가 45.5%에 달함
 - 더욱 문제는 기타 집적회로 반도체(15.2%), 기체펌프(9.4%), 자동차부품(8.3%) 등 소수 품목이 전체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집중화 구조임
- ▶ 대미 수출: 자동차부품(18.9%), 우주선(14.6%), 기체펌프(13.8%) 등 고부가가치 기술집약형
- ▶ 대중 수출: 기타 집적회로 반도체(57.4%)로 압도적 집중
 - 이는 한국 관세협정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100% 관세가 실제 적용될 경우 대전 수출의 핵심축이 동시에 타격받을 수 있음을 의미함

표 1. 대전의 대미 수출입 품목(2024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수출			수입		
	품목	금액	비중	품목	금액	비중
1	자동차부품	203	18.9	농약원제	94	17.7
2	우주선	157	14.6	사료	59	11.1
3	기체펌프	148	13.8	기타비철금속제품	45	8.5
4	기타계측기	60	5.6	TV카메라	31	5.8
5	데이터디스플레이장치	54	5.0	의약품	30	5.7
6	사무용품	49	4.6	우주선부품	22	4.2
7	기타철구조물	37	3.4	기타정밀화학원료	18	3.4
8	기타수산가공품	24	2.2	로얄제리	16	3.0
9	자동차용내연기관	23	2.1	임담배	14	2.6
10	압연기	22	2.0	밸브	13	2.5

주: MTI 6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그림 1. 수출 주력품목

	주력시장 미국, 한세안, 중국	전략시장 EU, 중동, 일본	신흥시장 인도, 중남미, CIS	비글로벌시장 영미·중·일·EU (군정국, ICT서비스 제외)
공급망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자동차 이차전지	자동차	2,510억불
탄소중립	석유제품·화학	조선 철강	철강	1,650억불
디지털	디스플레이 가전	콘텐츠 ICT 서비스	기계·로봇 디스플레이 가전	840억불
인구구조	바이오헬스 농·수산식품	바이오헬스 섬유 농·수산식품	바이오헬스	480억불
전략수주	해외건설 플랜트	원전방산 해외건설·플랜트 녹색산업	해외건설· 플랜트	↓ +기타 7,000억불
	4,800억불	1,460억불	650억불	

자료: '24년 범부처 수출확대 전략

1) 본고는 2025년 수행 중인 정책과제 「대전의 글로벌 공급망 취약성 분석 및 대응 전략」보고서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함

표 2. 대전의 대중 수출입 품목(2024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수출			수입		
	품목	금액	비중	품목	금액	비중
1	기타집적회로반도체	583	57.4	기타집적회로반도체	124	12.2
2	농약	64	6.3	의약품	53	5.2
3	메이크업, 기초화장품	23	2.3	기체펌프	43	4.2
4	기타계측기	22	2.2	알루미늄관	35	3.4
5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21	2.1	기타정밀화학원료	29	2.9
6	반도체제조용장비	18	1.8	기타원동기	23	2.3
7	기체펌프	18	1.8	밸브	23	2.3
8	기타인조섬유장섬유사	15	1.5	기타개별소자반도체	17	1.7
9	사무용품	13	1.3	스테인레스강냉연강판	16	1.6
10	제조담배	12	1.2	기타석유화학제품	15	1.5

주: MTI 6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반도체 100% 관세의 현실적 영향과 면제 가능성

• TSMC와 삼성의 면제 전망

- 대만 정부는 "TSMC는 미국 내 공장을 설립했기 때문에 칩 관세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밝혔고, 한국의 고위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관세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함
- 그러나 면제 기준의 모호성이 문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건설하거나 건설 과정에 있으면 관세 없음. 만약 건설한다고 하고 건설하지 않으면 나중에 누적해서 청구한다"고 경고했지만, 구체적인 투자 규모나 생산 비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음

■ 중소 반도체 부품업체의 직격탄

- 문제는 대전의 중소 반도체 관련 기업들로 대기업과 달리 미국 현지 투자 여력이 부족한 이들은 100% 관세의 직접적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대전세종연구원 2025년 수출기업 FGI 결과,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은 "관세 10%는 5~8% 매출감소, 25%는 10~15% 매출감소와 경영위기"로 응답함에 따라 100% 관세는 사실상 시장 퇴출을 의미함

■ 기업현장의 체감과 대응 전략

• 대전 수출기업의 관세 임계점과 생존 전략

- FGI 참여 13개 기업의 공통된 진단은 "10% 관세는 부분 흡수 가능, 25% 이상에서는 시장 이탈 위험 급증"으로 기업의 대응 전략은 다층적으로 확인됨
- ▶ 단 기 대 응: 미국 현지화, 베트남·필리핀 우회생산, HS코드 조정
- ▶ 중 기 전 략: 환헛자·무역보험 확대, 아마존 FBA 등 온라인 채널 강화
- ▶ 장 기 방 향: 대체시장 개척, 중국 역직구·유럽 우회 진출 검토

■ 업종별 차별화된 리스크

- ▶ 반 도 체: 100% 관세 위험 최고, 현지화 또는 면제 인증이 생존 관건
- ▶ 자동차부품: 15% 관세 확정, 우주·항공 부품은 상대적 안정
- ▶ 바이오헬스: FDA 인증 강화와 함께 규제·관세 이중 부담
- ▶ 국 방 우 주: Buy American Act 대응과 특례지정 필요성 증대

수출기업의 새로운 대응전략

■ 업종별 맞춤형 모니터링 체계

- 트럼프의 번덕스러운 관세정책(중국과의 90일 휴전 연장, 브라질 40% 추가 관세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모니터링과 업종별 영향도 분석이 필수이므로 대전시는 "글로벌 불확실성 모니터링센터"를 구축하여 관세율 변동, 면제 조건, HS코드 재분류 가능성을 지속 추적해야 함

■ 현지화 패키지 지원의 고도화

- 반도체·이차전지 기업의 미국 현지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 조건이 된 상황으로 법인설립·인증·세무·파트너 발굴을 통합한 '현지화 패키지'에 관세·원산지 검증 컨설팅을 추가해 트럼프 정부의 엄격한 검증에 대비해야 함

■ 우회수출의 합법적 정교화

- FTA 활용 컨설팅과 원산지 규정 준수를 전제로 한 베트남·필리핀 등 제3국 경유 생산은 관세 회피의 현실적 대안임, 다만 트럼프 정부가 'secondary tariff'(인도에 25% 추가 관세 부과)까지 도입하는 상황에서 우회국가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함

정책적 시사점

■ 중동 및 동남아 시장의 전략적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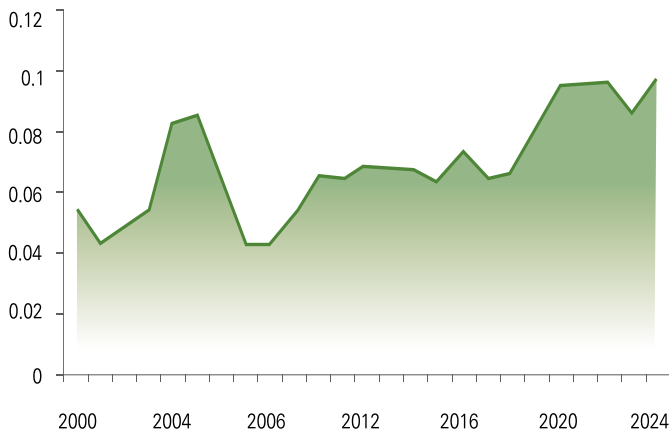
- 대전의 아랍에미리트(7.7%) 수출이 3위를 차지하고 있음. 중동 시장 다변화의 성공 사례처럼 국방우주 분야의 UAE·터키·폴란드 진출, 바이오헬스 분야의 동남아 시장 확대를 통해 미중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과정이 필요함

■ 대전 수출시장 집중도의 상승 위험

- 대전의 수출시장 집중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탄력성 약화를 극복하기 위한 권역별 프로그램의 발굴과 추진을 통해 시장 집중도 완화를 위한 노력이 시급함
 - 상위 3개국(미·중·UAE)이 53.2%를 차지하며, 반도체 등 기술집약적 품목에 집중됨에 따라 신규시장 진출에 제약이 따름

- 해법은 권역·품목 다변화, 고관세 품목의 전략적 현지화, 상시 모니터링과 금융 제도의 촘촘한 연결을 통한 3축 전략안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함
- 한국은 최혜국 대우(MFN) 결정에 따라 반도체 및 바이오 분야 15% 관세율 적용이 확정되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존재하는 상황임
- 대전의 수출산업 생태계가 트럼프 관세 정책의 격랑을 뚫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단기적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생존을 위한 수출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함

그림 2. 대전의 수출시장 HHI 추이



주: 허핀달-허쉬만 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 HHI)로 대전의 수출시장 집중도 수준을 측정함

■ 생존을 위한 새로운 전략 수립

- 트럼프 2기의 관세정책은 한국에 15% 협정 관세라는 상대적 안정성을 제공했지만, 반도체 100% 관세라는 새로운 위험 변수를 동시에 던짐에 따라 대전 수출기업들에게는 '현지화냐, 시장 이탈이냐'의 양자택일이 현실화 됨